

모로코전 앞둔 벨 감독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말라”

여자월드컵 30일 물리칠 수 없는 한판...순간적인 판단력 발휘 주문 한국 다득점 승리해야 16강 실낱 희망...골 결정력 높이기 집중 훈련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첫 승’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이 본격적으로 모로코전 대비에 들어갔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27일 오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외곽의 캄벨타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1시간가량 팀 훈련을 진행했다.

전날 선수들은 축구 등 가벼운 회복 훈련을 통해 25일 콜롬비아와의 1차전 0-2 패배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전환하며 패전의 아픔을 털어내려 했다.

웃음이 넘쳤던 당시와 달리 이날 코칭스태프는 시종 진지한 태도로 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벨 감독은 훈련 시작 15분 전부터 23명을 모두 그라운드에 불러 모은 후 당부의 말을 전했다.

피약분이 내리치는 가운데 선 채로 벨 감독의 말을 듣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벨 감독은 포메이션에 얽매이지 말고 매 순간 ‘원칙’에 입각해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정된 자리를 지키는 데 머물러있기보다는 순간적인 판단력을 발휘해달라는 취지다.

벨 감독은 “골 장면이 우리의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나왔다”며 “(선수들끼리) 말로 소통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경기 중 유연한 판단을 하도록 동료들 간 소통을 통해 그라운드 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벨 감독은 콜롬비아전 패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교훈을 얻었다. 우리 선수들의 의사결정이 빠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생각의 속도’가 느렸다는 지적으로, 실제로 콜롬비아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이할 만한 빠른 공 처리·패스워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벨 감독은 전날 김혜리에 이어 이날은 팀의 간판인 지소연(수원FC)을 따로 불러 원하는 바를 적극 주문했다.

콜롬비아전에 앞서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비한 수비 전술 훈련에 집중한 대표팀은 모로코를 상대로는 ‘공격 다듬기’에 매진했다.

뒷공간을 노린 침투패스를 받은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크로스나 킥백을 전달해 문전 공격수가 마무리하는 ‘골 결정력 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1패를 안은 상황에서 모로코전 다득점 승리를 노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모로코는 독일과 1차전에 이미 0-6으로 대패했다.

최전방 공격수뿐 아니라 조소현(토트넘), 이금민(브라이턴) 등 미드필더도 차례로 돌아가면서 페널티지역에서 슈팅하며 골을 노렸다.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7일 오전 시드니 외곽의 캄벨타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전을 앞두고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폴린 벨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다. 대표팀은 30일 오후 애들레이드의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모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골키퍼 윤영글(BK 헤켄)과 김정미(인천 현대제철)는 번갈아 골문을 지키며 이들의 슈팅을 쳐냈다.

대표팀은 모로코전이 열리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애들레이드로 29일 이동한다. 두 팀의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30일 오후 1시30

분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kick오프한다. 모로코의 FIFA 랭킹은 72위로, 우리나라(17위)를 포함해 H조에서 가장 낮다. /연합뉴스

주장 김혜리 “약체 평가 모로코전 방심은 없다”

월드컵 1승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간절한 마음 그라운드서 보여줄것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 나선 축구대표팀의 주장 김혜리(인천 현대제철)는 약체로 평가받는 모로코전을 앞두고 ‘방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혜리는 27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외곽의 캄벨타운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팀 훈련을 마친 후 취재진이 다음 상대 모로코에 대해 묻자 “우리가 월드컵에서 당연하게 이야기 할 팀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콜롬비아와 1차전에서 0-2로 진 대표팀은 16강 진출을 꿈꾸려면 모로코와 2차전 승리가 필수다.

김혜리는 월드컵에서 ‘1승’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며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거듭 말했다.

김혜리는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까지 포함해 월드컵에 4번 나왔지만 1승이 전부다”라며 “매 경기 승리를 위해 준비하지만 콜롬비아전을 꼭 이겨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 압박감이 쫓겼다”고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주장 김혜리. /연합뉴스

돌아왔다. 이어 “내가 월드컵을 세 번 출전했는데, (콜롬비아전 초반이) 가장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경기 후 선수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며 “평가전 등에서 나온 경기력에 비해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경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모로코전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선수들이 가볍게 회복 훈련을 하며 기분을 전환한 가운데 폴린 벨 감독은 김혜리만 따로 불러 그라운드에서 ‘즉석 면담’을 했다.

당시 심각한 표정으로 나는 대화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느냐 요청에 김혜리는 “내부적 이야기라 외부에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감독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대화하자는지 나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임무가 제일 중요해졌다”고 말씀하셨다. 다들 실망감이 큰데 앞장서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김혜리는 “한 경기에 패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그래서 선수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모로코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해야 한다.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라운드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호, 2026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중국·태국 등과 한조

11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괌 1차 예선 승자와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겨룬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AFC본부에서 2026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 추첨식을 열었다.

이날 조 추첨에서 한국(28위)은 7월 FIFA 랭킹에 따라 일본(20위), 이란(22위), 호주

(27위), 사우디아라비아(54위), 카타르(59위), 아랍에미리트(72위), 오만(73위) 등과 함께 1번 포트에 포함됐다.

4번 포트부터 시작된 조 추첨에서 한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괌 1차 예선 승자와 함께 C조에 배정됐다.

한국은 중국(80위)과 역대 전적에서 22승 12무 2패로 월등하게 앞서고 있고, 태국(113위)과도 31승 5무 9패로 우위를 지키고 있다.

또 싱가포르(158위·21승 3무 2패) 및 괌(203위·3전승)과의 전적 역시 앞서는 등 난한 조 편성을 받았다.

3번 포트에 포함됐던 북한은 일본, 시리아, 미얀마-마카오 1차 예선 승자와 함께 B조에 배정됐다. 북한의 2차 예선 참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2026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은 11월에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한국, 내년 파리올림픽 금 8개 예상”

미국 분석업체, 은 7·동 14개 획득 10위 전망

미국 낚스 산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가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29개의 메달을 획득해 메달 개수 순위에서 10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레이스노트는 파리 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둔 26일(현지시간) 예측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이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20개의 메달을 수확한 2020 도쿄 올림픽 때보다 나아진 수치다.

우리나라는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기준으로 정하는 종합 순위에서는 16위, 메달 개수에서는 헝가리와 더불어 공동 15위에 올랐다.

그레이스노트는 한국 스포츠가 2004 아테네 대

회, 2008 베이징 대회, 2012 런던 대회에서 남긴 성과 수준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내년 파리 대회에서는 도쿄 때보다 나은 성적을 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레이스노트의 파리 올림픽 예측에서 미국이 금메달 43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42개로 128개의 메달을 따내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2개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68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최국 프랑스가 금메달 32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1개로 금메달 순위에서는 2위, 메달 개수에서는 63개로 3위에 오를 것으로 그레이스노트는 점쳤다. /연합뉴스

PGA 투어, 비거리 줄이는 골프 볼 성능 제한 반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비거리 증대를 억제하기 위한 골프 볼 성능 제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PGA 투어의 제이 모너핸 커미셔너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R&A에 골프 볼 성능 제한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27일(한국시간) ESPN이 보도했다.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USGA와 R&A는 늘어가기만 하는 비거리 때문에 골프의 본질이 훼손되고 골프 코스가 무한정 길어질 수 없다며 골프 공이 일정 거리 이상 날아가지 못하게 성능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너핸 커미셔너는 이사회에 보낸 문서에서 “지난 2년 동안 PGA 투어의 비거리와 그 영향에 대

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향후 비거리 증가 억제에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USGA와 R&A가 제안한 수정 로컬 룰(골프 볼 성능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기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골프 볼 성능 제한을 선수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USGA와 R&A가 추진하는 골프 볼 성능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면 장타자들의 비거리는 5야드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데다수 선수는 “말도 안 된다”며 골프 볼 성능 제한에 반대하지만, PGA 투어 장타왕 로리 매길로 이(북아일랜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밀수
2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바비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틴에이지 크라켄 루비
4관	밀수
5관	엘리멘탈
6관	밀수
9관	밀수
7관 씨네마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인시디어스: 빨간 문, 여름날 우리
8관 씨네마	바비, 인시디어스: 빨간 문, 헌티드 맨션, 메타모포제의 빛마루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파랑새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2023. 8. 24 (목) - 26 (토)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CHUNG TRIO CONCERT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문화산책

즐거움

밀수